

□ 일본, 기업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1. 회귀하고 있는 일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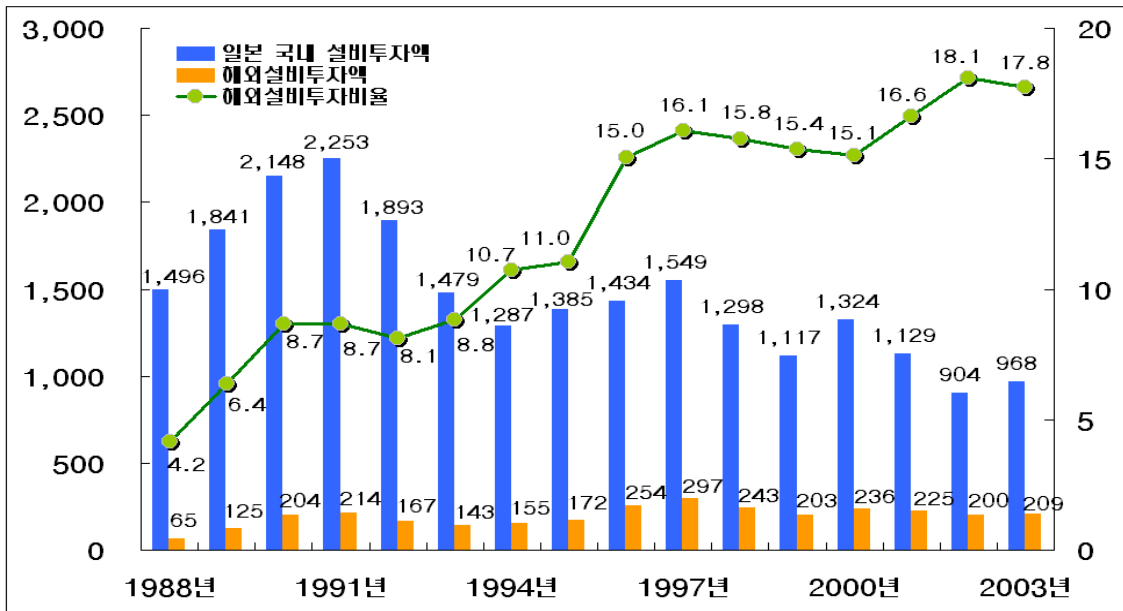
○ (회귀하고 있는 일본 기업) 최근 일본 기업들은 자국 내 설비투자 증가와 함께, 해외 설비투자 비중 감소 등의 회귀현상을 보이고 있음

- (해외 설비투자 비중 감소) 2000년 236억 엔에 이르던 해외 설비투자 규모가 2003년에는 209억 엔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설비투자 비율 또한 2002년 대비 0.3%p 감소하였음

· 일본 내 투자 증가: 더욱이 200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일본 내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증가 폭 또한 해외는 900억 엔 증가한 데 불과하나 일본 내는 6,400억 엔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음

< 일본 기업의 설비투자 추이(제조업) >

(단위: 100억 엔, %)



자료: 財務省, 「法人企業統計」; 經濟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각 년도.

주: 해외투자비율은 현지 법인 설비투자액/(일본 내 설비투자액+현지 법인 설비투자액)이며, 2002년도 수치는 대규모 투자 미제출분을 제외한 수치임.

- (철수 기업 증가) 1998년부터 증가세에 있던 일본 기업의 해외 신규 설립 및 자본 참가 법인수가 2003년 들어 급격히 감소한 데 반해 2002년 이후 철수하고 있는 해외 현지 법인수가 해외 신규 진출 기업수보다 많음

< 일본 기업의 해외 신규 설립 및 자본 참가 법인수 >

(단위: 개사)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제 조 업	321	233	235	300	335	306	154
비제 조업	345	239	253	311	271	345	223
합 계	666	472	488	611	606	651	377

자료: 經濟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2005년 3월 속보.

< 해외로부터 철수한 일본 기업 법인수 >

(단위: 개사)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제 조 업	109	172	139	279	208	354	258
비제 조업	140	244	245	417	223	346	344
합 계	249	416	384	696	431	700	602

자료: 經濟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2005년 3월 속보.

- (신흥 지역 및 선진국은 증가) 한편 일본 기업들은 중국과 ASEAN4, 유럽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 수준 또한 유지하고 있어 전략적인 투자 패턴을 보여주고 있음
  - 주요 전략 지역은 증가: 중국과 ASEAN4는 2003년 전년 대비 각각 23.3%, 13.6%씩 증가하여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 또한 18.8% 증가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북미는 현상 유지: 북미의 경우 2002년에는 전년 대비 23.1% 감소하였으나, 2003년에는 0.6% 증가하였음
  - NIEs3는 대폭 감소: 한국, 싱가포르, 대만에 대한 설비투자는 2002년 전년 대비 -1.1% 감소에 이어 2003년에도 -12.9%로 대폭 감소하였음
  - 일본 기업 투자는 전략적 선택: 따라서 일본 기업의 투자는 선진·고성장 대규모 시장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 제조 기업의 지역별 설비투자 추이 >

구 분	2002년		2003년	
	억 엔	%	억 엔	%
북미	7,841	-23.1	7,885	0.6
아시아	8,153	1.0	9,027	10.7
중국	2,591	28.3	3,195	23.3
ASEAN4	3,539	-17.8	4,022	13.6
NEIs3	1,604	-1.1	1,398	-12.9
유럽	2,807	-6.8	3,336	18.8

자료: 經濟産業省, 「海外事業活動基本調査」, 2005년 3월 속보.

○ (향후 일본 내 생산 비중 증가 전망) 日本經濟新聞社の 조사<sup>1)</sup> 결과 향후 일본 기업들은 일본 내 생산 비중을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 공장 신설 계획) 응답 기업 가운데 35.3%가 향후 일본 내 공장 신설 계획을 확정했다고 응답했으며, 검토 중이 23.5%, 계획 없음이 41.2%로 나타나 일본 제조 기업의 회귀현상이 가시화되고 있음
- (일본 내 생산 증강 계획) 또 3년 후에 일본 내 생산액을 증가시키겠다는 기업이 63.9%로, 이 가운데 64.7%가 10~30% 정도의 생산 증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2)</sup>
- (자본조달 계획) 한편 일본 내 생산을 증가시키겠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자본조달 방법 (2개 항목까지 복수 응답) 은 자기자본이 9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으로써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본 조사는 2005년 9월말부터 10월 중순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일본 내 주요 제조업체 16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122개사로부터 응답된 결과를 집계한 것임. 日本經濟新聞, 2005년 10월 22일.

2) 한편 일본정책투자은행 조사에 의하면 해외 설비투자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 가운데 국내 투자도 증가 또는 현상 유지라고 응답한 기업이 43%(173개사)에 달함. 반면 국내 설비투자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기업 가운데 해외 투자도 증가 또는 현상 유지라고 응답한 기업은 21%(86개사)에 불과했음. 日本政策投資銀行, 「設備投資行動等に関する意識調査」, 2004년 11월 調査.

< 향후 일본 제조 기업의 설비투자 태도 >

제조기업 405개사		일본 내		
		증가	현상유지	감소
해외	증가	57(14%)	116(29%)	29(7%)
	현상유지	29( 7%)	139(34%)	19(5%)
	감소	21( 0%)	12( 3%)	2(0%)

2. 도시바도 돌아 왔다<sup>3)</sup>

- (일본 내 투자 확산) 2002년 이후 디지털 관련 제조사 중심의 일본 내 대형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타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음
  - (반도체) 도시바는 2007년까지 총 4,700억 엔을 들여 플래쉬 메모리와 시스템 LSI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며, 엘피다메모리는 약 6,000억 엔을 들여 2003년부터 2개의 공장을 건설 중으로, 기타 소니 등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임
  - (박형 패널) 샤프는 2002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3,920억 엔을 들여 대형 액정 패널, 대형 액정 TV, 시스템 액정 등을 생산하기 위한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며, 이외에 마츠시타전기산업이 1,550억 엔 등 박형 패널 분야는 5개사가 2008년 하반기까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디지털 카메라) 캐논은 2004~2005년에 276억 엔을 투자하여 디지털 카메라와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공장을 건립할 뿐 아니라, 2007년 1월 가동을 목표로 소모품 생산 공장 건설에 약 800억 엔을 투자하고 있음
  - (태양전지) 산요전기는 2004년에 태양전지 생산 공장을 128억 엔을 투자하여 준공함
  - (재료) 후지사진필름은 2010년까지 1,000억 엔 이상을 투자하여 액정판넬용 편광판 보호 필름 생산을 위한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기계) 코마츠는 대형 기계의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증강을 목표로 2007년 1월 가동을 전제로 약 300억 엔을 투자하기로 결정함
  - (제철) 도쿄 제철은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용 강판 생산을 강화시키기 위해 2005년 9월 공장용 부지 104헥타르를 확보하고 14년 만에 신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음

3) 白嶋 徹, 「製造業の国内回帰現象の裏にあるもの-無差別的な国内回帰ではなく立地最適化の結果」,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05년 3월 및 각 회사의 발표 자료 참조.

< 최근 일본 기업의 일본 내 대형 투자 사례 >

(단위: 억 엔)

구 분	기업 명	사업내용	투자액	공사기간
반도체	도시바	300mm웨이퍼 대응 시스템LSI 생산 라인	2,000	'03~'07
		300mm웨이퍼 대응 플래쉬 메모리 생산 라인	2,700	'03~'06
	르네상스 테크놀러지	300mm웨이퍼 대응 양산 라인 증설	700	'03
	NEC 일렉트로닉스	300mm웨이퍼 대응 시스템LSI 생산 라인	650	'03~'04
	후지츠	300mm웨이퍼 대응 시스템LSI 생산 라인	1,600	'04~'07
	엘피다메모리	300mm웨이퍼 대응 DRAM 공장 증설	1,050	'03~'04
			4,500~ 5,000	'04~
	마츠시타 전기산업	300mm웨이퍼 대응 DRAM 공장	1,300	'04~'05
소니	300mm웨이퍼 대응 초고속프로세서 생산 라인 증 설	530	'04	
박형 패널	샤프	대형 액정 패널(제6세대), 대형 액정 TV	1,500	'02~'05
		대형 액정 패널(제8세대)	1,500	'05~'06
		시스템 액정	920	'02~'04
	마츠시타 전기산업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플라즈마 TV(2공장)	600	'03~'04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플라즈마 TV(3공장)	950	'04~'05
	후지츠·히타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750	'05~'07
	IPS 알파테크놀러지	박형TV용 대형 액정 패널(제6세대)	1,100	~'08
도시바·마츠시타 디스플레이 테크놀러지	중소형 액정 패널(제4세대)	500	'05~	
디지털 카메라	캐논	디지털카메라,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276	'04~'05
사무용 소모품	캐논	복사기 소모품 생산 공장	800	'06~'07
태양 전지	산요전기	태양전지	128	'03~'04
재료	신네츠화학공업	300mm 실리콘 웨어 증설	900	'03~'04
		300mm 실리콘 웨어 증설	1,000	'04~'06
	후지사진필름	액정 패널용 편광판 보호 필름 공장	1,000~	~'10
기계	코마츠	건설 광산용 대형 기계 생산 공장	300	'05~'07
제철	도쿄제철	제철소(부지확보 상태)	-	'05~
자동차 부품	덴소	자동차 에어컨 등 자동차 부품 공장	200	'05~'06

자료: 白嶋 徹, 「製造業の国内回帰現象の裏にあるもの-無差別的な国内回帰ではなく立地最適化の結果」,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05年 3月 및 각 회사의 발표 자료 참조.

### 3. 5대 회귀 배경

- (클러스터 효과)<sup>4)</sup> 재료, 부품, 제조장치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본 국내에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생산에 착수할 수 있는 등 이른바 클러스터 효과가 존재함
  - (기술개발 가속화) 일본 기업은 국내 생산 거점 확대를 통해 기술개발과 생산을 일체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기술개발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특히 플래쉬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나 박형 TV 등 설비 집약형 사업이나 연구개발 집약형 사업의 경우 클러스터 효과 활용을 위한 회귀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블랙박스화 추진) 일본 기업의 강점인 제조 기술의 노하우 등 지적재산 보호를 통한 첨단 기술 유출 방지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려는 블랙박스화 전략을 추진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음<sup>5)</sup>
  - 샤프: 액정 글라스 기판에 반도체 칩을 탑재할 수 있는 시스템 액정 제조 기술의 블랙박스화 추진
  - 마츠시타전기산업: 디지털 가전, 반도체 등의 첨단 분야의 기술을 블랙박스화시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생산 기술뿐 아니라 설비에 대한 블랙박스화도 추진하고 있음
  - 캐논: 오이타시(大分市)에 새롭게 건설 중인 소모품 공장의 설비는 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사 전용 설비를 도입하는 등 블랙박스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의 우수 인력 활용 또한 신공장 건설 전략에 포함됨

4) 이하 논의는 白嶋 徹, 「製造業の国内回帰現象の裏にあるもの-無差別的な国内回帰ではなく立地最適化の結果」, ニッセイ基礎研究所, 2005년 3월과 經濟産業相, 「製造基盤白書」, 2004년을 참조할 것.

5) 입지 최적화 클러스터 효과활용을 통한 기술개발 가속화, 블랙박스화는 결국 일본 기업들의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입지최적화 행동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일본 기업들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 (신제품 및 제품 고도화 투자 증가) 일본정책투자은행에 의하면 제조업 부문 대기업은 능력 증강 투자는 줄이는 대신 신제품 및 제품 고도화 투자는 증가시킬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능력 증강 투자는 감소: 일본 제조업 부문 대기업들의 능력 증강 투자는 2004년 31.4%에서 2005년에 0.8%p 감소된 30.6%를 계획하고 있음
    - 신제품 및 제품 고도화 투자는 증가: 반면 전기기계 등의 가공·조립형 산업을 중심으로 신제품 및 제품 고도화 부문 투자를 증가시킬 것임
  - (기업의 경쟁 전략 변화) 일본 기업의 자국 내 신제품 및 제품 고도화 투자의 증가는 결국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임
    - 제품 이미지 격차 존재: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등 고성장 지역 소비자들은 일본 브랜드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반면,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생산 제품은 아직도 저부가가치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브랜드 가치 극대화: 따라서 일본 기업들은 자국 내 신제품 및 제품 고도화 투자 증가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 시장에서 메이드 인 재팬 효과를 통한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음

< 최근 일본 대기업의 투자 동기 >

(단위: %)

구 분	전산업		제조업		소재형		가공·조립형	
	2004년 실적	2004년 실적	2004년 실적	2005년 계획	2004년 실적	2005년 계획	2004년 실적	2005년 계획
능력 증강	38.2	37.4	31.4	30.6	25.3	25.6	35.3	32.7
신제품·제품고도화	9.4	9.5	18.4	18.8	7.6	7.1	24.7	26.2
합리화·성력화	7.3	7.8	13.7	13.9	16.2	16.3	12.6	12.6
연구개발	4.5	5.0	7.9	8.6	7.0	6.9	8.8	9.9
유지·보수	18.8	20.9	16.5	17.1	29.5	29.0	8.9	9.9
기타	21.8	19.4	12.0	11.0	14.4	15.1	9.7	8.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日本政策投資銀行, 「2004·2005·2006年度設備投資計画調査報告書」, 2005년 6월 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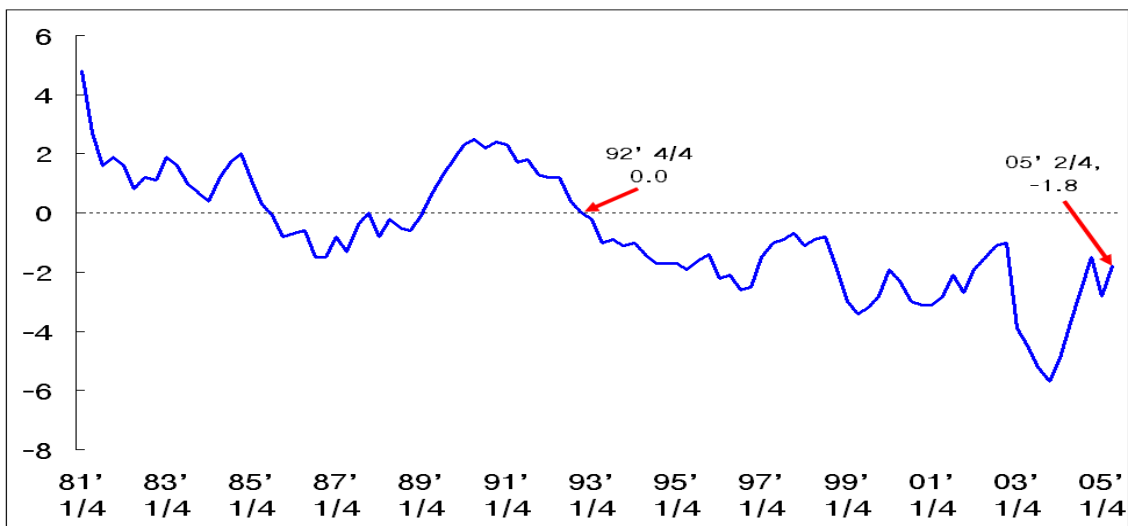
주: 응답 기업은 전체 2,234개사이며, 연구개발은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국내 투자 가운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투자 비중임.



- (투자 여력 증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에 힘썼을 뿐 아니라 설비투자 디플레이터 또한 저하되면서 설비 투자 여력이 크게 증대되었다는 점도 일본 기업의 국내 회귀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sup>6)</sup>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버블 붕괴 후 일본 기업의 채무 반환이 확대되면서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설비투자 디플레이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기업의 투자 여력이 크게 증대됨
  - 매출액 대비 부채 비율 감소: 버블 붕괴 이후 최고 64.7%(1994년)에 달하던 일본 기업(제조업)의 매출액 대비 부채 비율이 2004년 56.4%까지 감소하여 버블 붕괴 전 수준으로 회복됨
  - 설비투자 디플레이터 저하: 설비투자에 관한 디플레이터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992년 4/4분기 0.0%를 기록한 이래 계속해서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하여 설비투자 여력 증가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 (버블 붕괴 후 설비투자 억제 반등) 한편 최근의 일본 기업의 회귀현상은 버블 붕괴 후 억제되어왔던 설비투자에 대한 반등 효과도 감안되어 있음

< 일본의 설비투자 디플레이터 추이 >

(단위: %)



자료: 일본 내각부.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추이를 나타냄.

6) PHP研究所, '企業設備投資の国内回帰と地域政策', 「PHP政策研究レポート」, Vol. 6, No.74, 2003年 8月.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미에현(三重縣), 오이타현(大分縣) 등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정책 또한 일본 기업의 국내 회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미에현의 사례) 미에현은 ‘미에현기업입지촉진조례’를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밸리구상관련산업입지촉진보조금’, ‘산업집적촉진보조금’, ‘연구시설·과소지역등입지촉진보조금’, ‘구조개혁특별구역내연구개발시설보조금’ 등을 마련,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미에현을 포함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와 유사한 기업 유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국내 회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4. 한국도 국내 투자 유인책을 세워야 한다

- (기업: 전략적인 투자 전략과 브랜드 이미지 강화) 기업은 장기 비전에 입각한 최적 투자와 핵심 부품의 내제화를 통한 전략적 기술 운용, 브랜드 가치 극대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장기 비전에 입각한 최적 투자 필요) 장기 비전에 입각한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투자를 수행함으로써, 노후 설비의 축적과 과잉 공급 및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률 향상에 힘써야 함
  - 정석 경영 필요: 특히 일본 기업들은 중국, 아세안 등 고성장 지역과 유럽 등 대규모 시장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북미와 같은 클러스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등 정석 경영을 실천하고 있음
- (핵심 부품의 내제화) 핵심 부품의 내제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제품 차별화, 사내 부품 수요 지원을 통한 부품 조달 안정성 확보를 꾀함으로써 경쟁 기업의 블랙박스화 전략에 대응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임

- 단 관련 산업 분야와의 적절한 제휴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블랙박스화로 인한 시너지 손실을 최대한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브랜드 가치 극대화)** 고부가가치 신상품 개발 및 생산 이원화, 제품 디자인력 향상과 동시에 메이드 인 코리아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임
  - **생산 이원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제품은 해외 생산 기지에서 양산하는 이른바 생산 이원화 체제를 운영하는 일본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 기업도 기업 전략에 맞는 생산 이원화와 같은 새로운 생산 체제 구축이 필요함
  - **메이드 인 코리아 효과 활용:** 최근 한국의 국가 이미지 및 기업 브랜드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어 제품 디자인력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력 등을 향상시키고자하는 노력과 메이드 인 코리아 효과를 활용한다면 기업 브랜드 가치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정부: 산업 집적 형성 유도 및 투자 환경 개선)** 정부는 첨단 부품 및 소재 산업 중심의 산업 기반 조성 지원을 통해 산업 집적 형성을 유도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투자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함
  - **(연구개발 집약형 첨단 부품·소재 산업 육성)** 정부는 연구개발 집약형 첨단 부품·소재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시킴으로써 완성품 제조 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시키고 관련 산업의 집적을 형성해야 할 것임
  - **(고비용 구조 개선 등을 통한 투자 환경 개선)** 정부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고임금, 고물류비 등 고비용 구조 개선을 통한 투자 환경 개선과 노사관계 안정화나 규제 완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 투자를 촉진시켜야 함
  - **(지방정부는 적극적인 기업 투자 유치 노력 필요)** 지방정부는 지역특구 조성 등 적극적인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지역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방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함

이부형 연구위원 (3669-4011, lbh@hri.co.kr)